

201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 ◆ 대학명: 흥익대학교
- ◆ 모집시기: 수시 1차
- ◆ 전형명칭: 일반전형
- ◆ 모집계열: 인문계열
- ◆ 출제유형: 통합형
- ◆ 개요

- 시험시간: 150분
- 출제문항수: 3
- 답안지 양식, 분량: 원고지 양식, 700±100자
- 지정된 필기구 : 본교에서 지급한 청색 볼펜
- 수험생 유의사항

1. 답안에 제목을 쓰지 말 것
2. 모든 답안은 하나의 완결된 글의 형식으로 쓸 것
3. 각 문제마다 7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
4.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경우 감점
5. 수험생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현이나 불필요한 표시가 있는 답안은 0점 처리
6. 답안의 작성 수정은 지급된 청색 볼펜 사용,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 금지
7. 세 문제 모두에 답해야 하며, 지원분야별 해당 문제의 배점은 그 외 문제의 2배임

◆ 출제방향(취지) 및 교과서 관련여부 및 근거

【문제 1】에서는 일과 놀이의 구분이 점차로 없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놀이의 다면성을 고찰하도록 한다. 놀이와 진지함의 관계로 놀이 개념에 대한 시각을 설명하는 지문을 통해 놀이의 속성에 진지함이 포섭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사회적 불복종이 모방이라는 형식의 놀이로 표현되는 제시문 (나), 개인적인 화해를 통해 인격의 승화와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과정을 다룬 제시문 (다), 플래쉬 몹이라는 놀이의 형태를 다룬 제시문 (라)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냄으로써 놀이 개념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이해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는 지문이다.

【문제 2】에서는 사적 소유권이 확립되지 않은 공유자원의 경우 자원의 과다 이용과 고갈 등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최근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의 보급에 따라 확산되기 시작한 공유 경제라는 현상이 이런 관점에 대한 반례(反例)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대비시켰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현상은 소통과 연계를 강화시켜 개인주의가 자칫 초래할 수도 있는 인간과 사회와의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지문들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서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을 가진 학생이라면 무난하게 답변할 수 있는 수준의 글이다.

【문제 3】에서는 (아) 공리주의 사상에서 개인의 권리는 인정되지만, 공리, 즉 이익의 극대화(최대행복)에 의해서 개인의 권리, 특히 본질적인 것도 언제든지 제한 또는 박탈될 수 있다는 점

을 설명하고, (자)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에서 개인의 권리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는 점과 그 범위에서는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차) 개인의 권리는 보장(존중)되고, 공공복리·사회질서 유지를 이유로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만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제한할 수 없고, 또한 공리만을 이유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의 그것과 다르고, 개인의 권리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자)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을 찾아서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가를 평가 목표로 한다. 법과사회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도 기본적인 독서가 이루어져 있다면, 주어진 지문만으로도 쉽게 찾아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고, 논리적으로 잘 비교할 수 있는가도 평가대상으로 한다.

◆ 평가기준

- 1)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다수의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고 있는가
- 2) 개인적 감상이나 직접적 관련 없는 도식화된 예를 활용하는 경우는 감점
- 3) 제시문을 자신의 말/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
- 4) 7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처리 기준에 따라 감점

◆ 출제문제: 인문

【문제 1】 제시문 (가)의 놀이 개념에 대한 시각을 요약하고, 이 시각을 바탕으로 제시문 (나)~(라)에서 놀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놀이의 의미를 (나),(다),(라)의 순서대로 각각 논하시오. (700±100자) **【문과대학, 사범대학 및 예술학과 지원자에게는 타 문제의 2배의 배점】**

제시문 (가)

사람들은 보통 놀이는 진지함의 정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놀이와 진지함의 대립 관계는 확정적인 것도 고정적인 것도 아니다. 단어의 개념은 언제나 그 반의어에 의하여 결정된다. 가령 놀이의 반의어는 진지함인데 일반적으로 일과 관련해서 사용된다. 하지만 놀이와 진지함의 상보적 관계가 더 중요하다. 언어에서 놀이 개념은 반의어인 진지함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듯하다. ‘놀이 아님’을 표현하는 단어에 대한 필요는 상대적으로 빈약했고, ‘진지함’에 대한 다양한 표현은 ‘놀이’의 개념적 반의어를 만들어 내기 위한 언어의 2차적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진지함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주로 열성, 노력, 수고 등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특성들은 놀이와도 관련이 된다. ‘진지함’이라는 단어가 나타났다는 것은 사람들이 놀이 개념에 하나의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비교적 후대에 이루어진 과정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놀이 개념을 갖고 있는 게르만 언어들이 그 반의어들도 강조한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놀이의 의미를 ‘진지하지 않음’, ‘심각하지 않음’이라고 정의해서는 그 의미가 완전히 파악되지 않는다. 놀이 개념 자체는 진지함보다 더 높은 질서 속에 있다. 왜냐하면 진지함은 놀이를 배제하려고 하는 반면, 놀이는 진지함을 잘 포섭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시문 (나)

자크 벵상의 인쇄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에 따르면, 그곳에서 일어났던 가장 재미있는 사건은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고양이를 학살한 일이었다. 그들은 인쇄소 주인의 고양이만 도 못한 대접을 받으며 고양이 시중까지 들어야 했다. 그러던 중 인쇄소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근위대와 고해를 담당하는 사제와 사형집행인이 완비된 모의재판을 벌였다. 그들은 고양이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최후의 의식을 거행한 뒤,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만든 교수대에 그 짐승들을 매달았다. 떠들썩한 웃음소리에 인쇄소 여주인이 와봤다. 고양이가 밧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본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이 순간 남편인 인쇄소 주인이 나타났다. 그는 인쇄 작업이 모두 중단된 것에 격노하였다. 자신이 아끼던 고양이 회색둥이도 살해되었다고 생각한 여주인은 노동자들이 단순한 작업 중단보다 더 심각한 불복종을 표현하고 있다고 남편에게 설명하려 하였다. 주인과 여주인은 안으로 물러났고 남은 사람들은 환희, 무질서, 웃음으로 미칠 지경이었다.

웃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 뒤 며칠에 걸쳐 인쇄공들이 기분 전환을 위해 잠시 쉬려 할 때마다 레베이에는 최소한 스무 번에 걸쳐 그 모든 장면을 무언극으로 재연했다. 인쇄공들의 속어로 ‘모방(copie)’이라고 하는 것은 인쇄소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광대극 식으로 재연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들에게 중요한 오락이었다. 이 오락의 목적은 인쇄소의 어떤 사람의 특징을 풍자함으로써 모욕을 주는 것이었다. 성공적인 ‘모방’은 그 대상이 된 사람을 격노에 떨게 만들었지만(인쇄소의 속어를 쓴다면 ‘염소를 잡지만’), 그 동안 동료들은 장단을 치는 것과 같은 ‘거친 음악’으로 그를 조롱하였다. 그들은 식자용 스틱을 활자 상자 뚜껑 위에 굴린다든가, 망치로 벽을 친다든가, 찬장을 두드린다든가, 염소의 울음소리를 냈던 것이다. 염소 울음은 영어에서 누가 ‘당신의 염소를 죽였다’는 표현처럼 희생자에 가해진 모욕을 뜻했다. 콩타는 레베이에가 여태껏 알던 것 중 가장 재미있는 ‘모방’을 했으며 가장 큰 ‘거친 음악’의 합창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양이 학살과 ‘모방’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는 제롬의 생애 전체에서 가장 즐거웠던 경험으로 남아 있었다.

제시문 (다)

『청천양화소록(靑川養花小錄)』은 강희안이 직접 화초를 키우면서 알게 된 화초의 특성과 재배법 등을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다. 여기에는 그가 꽃나무를 기르다가 한가한 틈을 내어 물가에 앉아 삶을 관조하는, 선비 화가의 꽃 기르는 마음이 담겨 있다. 아래의 글은 강희안의 동생 강희맹이 형의 책에 대한 소개와 감회를 적은 서문이다.

돌아가신 형 인재(仁齋)선생은 재주와 덕을 온전히 갖추어 모든 사람들이 재상이 되리라 기대했지만, 끝내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였다. 그러니 은덕이 감추어진 채 베풀어지지 못하고 웅크린 몸을 펴지 못하게 된 경우이다. 그는 일찍이 『청천양화소록(靑川養花小錄)』을 지어 자신의 깊은 뜻을 담았다. 그는 이 책에서 옛 방법을 널리 모으고 자신의 견문을 첨가하여, 건조하게 해야 할 것과 습하게 해야 할 것을 구별하고 모종을 내는 것과 꺾꽂이하는 방법을 논하면서 은연중에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를 돕는 뜻을 담았으니, 마음 깊이 지극한 도에 통달하고 세상의 이치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아아! 화훼는 식물일 뿐이어서 서로 느끼거나 대화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구부리거나 펴는 것, 바로잡거나 휘게 하는 것, 꽃을 피우게 하거나 꺾어주는 일 등은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치를 거슬러서는 안 되므로, 다만 그 식물의 본성에 따라 온전히 할 뿐이다. 만약 하늘이 그의 수명을 연장하여 이러한 솜씨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면 사람들에게 끼친 어진 은혜와 이로움이 컸을 것이니, 어찌 꽃을 키우는 자그마한 일에 매달려 교화의 신묘한 재주를 다하였으랴.

제시문 (라)

참가자들은 대도시의 분주한 시가지에서 오렌지색 연기가 어디선가 뿜어져 나오기를 기다린다. “오렌지색 연기를 기다려라! 연기가 나면 광란(rave)이 시작된다”는 것이 그들이 공유한 지시이다. 하루 전날 스피커와 음향시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참가자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준비된 자동차들은 거리를 막은 채 일제히 오렌지색 연기를 뿜어내고, 이를 몇 마일 밖에서 보고 몰려든 군중으로 거리는 순식간에 가득 찬다. 음악소리와 함께 수천 명이 넘는 군중이 트럭과 버스 사이로 쏟아져 나온다. 이는 1990년대 초에 영국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거리를 점령하라 (Reclaim the Street)’는 구호로 잘 알려진 플래시 몹(flash mob)의 전형적인 한 장면이다. 2008년 영국 런던 템즈 강변에서는 눈에 띄게 배가 부른 한 무리의 임신한 여성들이 군중 속에서 나타나 함께 브레이크댄스를 추었다. 출산의 고통과 보육시설의 부족을 상징하는 춤이었다. 회합의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육체적 위험을 감수한 춤으로 인해 이 플래시 몹에 대한 대중적 기억은 강렬하게 남아있다. 최근 서울의 명동과 홍대 앞에서는 전문 댄서, 대학생, 일반인들이 참여하여 ‘개(犬)식용 산업 반대’를 위한 플래시 몹을 진행하였다. 식용으로 고통 받으며 죽어가는 개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멈추기를 바라는 뜻에서 기획된 것이었다. 플래시 몹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조직되는 군중의 회합으로, 참가자는 서로를 전혀 알지 못한다. 이들은 모였다가 짧은 시간 내에 흩어진다. 플래시 몹은 그 유래를 명확히 알기 어렵고 정확하게 정의하기도 힘든 다양한 형식의 퍼포먼스로 변모해왔다.

【문제 2】 제시문 (사)에서 밑줄 친 신경제(新經濟)가 출현하게 된 원인을 (사)의 본문에서 찾아 서술하고, (사)의 내용이 제시문 (마)와 (바)의 견해에 대해 갖는 의미를 논하시오. (700±100자) [경영대학 및 경제학부 지원자에게는 타 문제의 2배의 배점]

제시문 (마)

공공이 소유하는 자원들(땅, 공기, 호수, 하천, 어족, 야생동물 등)은 개인이나 단체에 의하여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중복적으로 사용된다. 누구도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는 없

으며 또한 누구도 다른 사람들이 이 자원을 같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혹은 비합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공유자원은 이러한 본성 때문에 모든 이에게 속하며 동시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모든 이가 이용하기 때문에 과용되고 낭비되고 결국은 소멸되어 버린다. 누구도 이를 유지하고 보존하고자 노력할 유인이 없다. 개별 사용자들이 이 공유자원에서 보다 많은 가치를 획득할 유일한 방법은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하기 전에 가능한 한 먼저 자원을 고갈시켜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사적 소유권 제도는 소유자들이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최대한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익추구'와 '경제적 유인'은 소유자들이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장기적으로 유지시키고자 노력하도록 만들어 준다. 자원의 소유자는 오늘과 내일, 심지어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도 자원으로 부터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는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자원을 관리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의심할 바 없이 18세기의 위대한 사상가들은 '자기애(自己愛)' 혹은 '사익추구'를 "세계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파악하였다. 그들은 이 개인주의가 이러한 세상의 지도적 원리이며, 삶과 행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고 생각하였다.

제시문 (바)

많은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현대 문명의 가장 탁월한 성취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스스로의 생활양식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사법 제도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현대의 자유는 지나간 삶의 지평(地平)을 파괴함으로써 획득된 것이다. 과거에 사람들은 스스로를 더 거대한 질서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곤 했다. 때때로 이는 우주적 질서, 또는 "존재의 거대한 연쇄(Great Chain of Being)"를 의미하기도 했다. 그런데 개인은 이 거대한 사회적 내지 우주적 지평과 관련하여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상실한 것이다. 몇몇 책은 인생에서 영웅적 차원이 상실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고귀한 가치나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19세기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사람들이 민주적 시대에 "작고 통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삶의 목적을 상실하면서 삶의 지평은 협소해졌다. 사람들은 거대한 이상을 잃게 되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 일상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개인주의의 어두운 이면(裏面)은 자기 자신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은 무미건조해지고, 협소해지고, 삶의 의미는 실종되고, 우리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 혹은 사회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제시문 (사)

뉴욕의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자전거 공유시스템을 사랑하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들은 블룸버그 뉴욕 시장을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교통관리자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들이 이해하는 것은 반쪽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 뉴욕 시의 자전거는 단순히 자전거가 아니다. 이는 소유 대신에 공유에 기반한 신경제(新經濟)를 향해 가는 도전이다. 이제 자전거나 자동차, 드레스, 책이나 전기톱을 살 필요가 없다. 그 대신에 빌리거나 서로 바꾸어 쓰면 된다. 제품 수명의 95%의 기간 동안 한쪽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물건을 대량으로 소유하는 것은 현명한 생활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이것은 가히 사회적 혁명이라 부를 만하다. “우리는 개인적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을 조화시키면서, 공유 자원 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부터 가치를 창조하는 방식을 다시 배우고 있다. 네트워크와 휴대전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효율성이 제고되고 사회적 연계가 심화되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자전거, 공간을 절약하는 기술 등 다양한 자산을 교환하거나 공유하는 일이 역사상 처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분야에 따라서는 매우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다.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 모든 도착지에 집을 사서 소유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그저 침대가 있는 방 하나를 빌릴 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공유경제가 경제생활의 대부분이었다. “미국에서 사람들이 스스로를 위해 물건들을 사서 소유하게 된 것은 기껏해야 산업혁명과 기계화, 그리고 신용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진 최근 75년 전부터 가능했던 일이다.”

최근까지도 공유경제가 우세했던 분야가 있다. 우리는 러닝머신(treadmill)을 개인적으로 구입하기보다 헬스클럽을 이용한다. 우리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영화나 음악 DVD도 빌려서 사용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에 이 공유경제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사업가들이 소유 대신에 인터넷에 기반한 접근성(access)에 착안하고 있다. 도시의 자유로운 젊은이들에게 공유경제는 경제하게, 낭비하지 않고,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공동체와 교감하는 의식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렇게 살면서 더 나은 경제적 효용을 누리고 있다.

【문제 3】 제시문 (아)와 (자)에 나타난 사상에서 개인의 권리(사권)에 대한 견해를 각각 설명하고, 이 두 견해를 각각 제시문 (차)의 입장과 비교하여 논하시오. (700±100자) **【법과대학 지원자에게는 타 문제의 2배의 배점】**

제시문 (아)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 개혁가인 제러미 벤담은 공리주의의 원칙을 정립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도덕의 최고원리는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벤담은 옳은 행위를 공리를 극대화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공리(功利)’란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을 막는 것 일체를 가리킨다. 공리를 극대화한다는 원칙은 개인만이 아니라 입법자에게도 해당되며, 국가는 법과 정책을 만들거나 또는 이를 적용할 때,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 사람들은 절대적이고 확실한 권리나 의무가 있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권리나 의무를 존중하면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인간의 행복이 극대화된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그런 권리나 의무를 옹호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리주의는 오직 만족의 총합에만 관심을 두는 탓에 개인의 권리가 유린될 수 있다. 개인의 행복은 단지 사람들의 선호도를 더할 때 계산되는 한 항목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로 1970년대 미국에서 대단히 많이 팔린 포드사의 소형 자동차 '핀토'의 연료탱크 결함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차는 다른 차가 추돌했을 때 연료탱크가 쉽게 폭발한다는 결함이 있었다. 추돌사고로 연료탱크가 폭발하여 화상을 입은 포드 핀토의 한 차주(車主)가 자동차의 설계결함을 이유로 소(訴)를 제기했는데, 이 때 연료탱크의 폭발 위험성을 포드 기술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회사 경영자는 비용·편익 분석을 해본 결과, 연료탱크를 안전하게 보호할 장치를 부착하려면 차 한 대당 11달러가 소요되어, 전체 1,250만대 모두에 이 장치를 장착할 경우 1억3,750만 달러가 드는 반면, 사고가 나서 파손된 연료탱크의 수리비용 및 인명손실에 대한 예상 손해배상금은 4,950만 달러에 불과해 연료탱크 보호 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이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추계는 포드 자동차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80명이 죽고 180명이 화상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한 사람당 사망 20만 달러, 화상 6만7,000달러라는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에 대한 비용계산 방식을 따른 결과이다.

제시문 (자)

고전적 자유주의는 서구 유럽에서 봉건제 말기 절대주의 국가의 규제와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하였다. 이 사상은 '사회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무수히 많은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개인주의를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이익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아담 스미스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그가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노력할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회 이익에 기여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본가들이 경쟁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마음껏 추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아 매우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시민을 대내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시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며, 개인은 그 틀 안에서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제시문 (차)

헌법상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는 재산권 행사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내지 사회적 의무를 선언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하였다. 재산권의 공공복리적합성은 사유재산제도에 기초하여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보장하되, 재산권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통찰하여 재산권 행사에 일정한 제약과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 및 판례도 여러 원칙에 의해 재산권의 공공복리적합성을 구현하고 있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도 그 중의 하나이다. 권리남용은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검토할 때에는 권리의 공공성 또는 사회성에 반하거나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없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권리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의 행사가 공공복리·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권리행사를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남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 문제 1(문과, 사범, 예술계열 가중치)

▣ 제시문의 출전 및 해설

● 제시문 (가)

- 출전: 요한 하이징아 저, 『호모 루덴스』, 이종인 옮김, 연암서가, 2013 및 Johan Huizinga, 『Homo Ludens』, 1938 에서 발췌, 편집
- 해설: 이 제시문은 네덜란드의 역사학자 요한 하위징아(1872-1945)의 대표적 저작인 『호모 루덴스』(Homo Ludens: 놀이하는 인간)의 일부를 발췌편집한 것이다. 이 부분은 그가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놀이의 다양한 본질과 의미 중에서, 놀이와 진지함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이 둘의 대립적 관계가 아닌 상보적 관계에 주목하고, 한 층 더 나아가 진지함까지 포섭하는 놀이의 높은 질서에 관해 기술하였다.

● 제시문 (나)

- 출전: 로버트 단턴 저, 조한욱 옮김, 『고양이 대학살』, 문학과 지성사, 1996 및 Robert Darnton, *The Great Cat Massacre: And Other Episodes in French Cultural History*, 1985에서 발췌, 편집
- 해설: 이 제시문은 서양사학자 로버트 단턴이 저술한 『고양이 대학살 - 프랑스 문화사 속의 다른 이야기들』에서 발췌, 편집한 것이다. 18세기 파리의 한 인쇄소 노동자들이 열악한 처우에 대한 저항과 불복종을 고양이 모의재판을 하여 처형하는 것으로 표출하고 이를 ‘모방’이라는 형식의 놀이로 재연한 에피소드 부분을 적은 것이다.

● 제시문 (다)

- 출전: 강희안, 『양화소록(養花小錄)』, 서윤희 이경록 역, 김태정 사진, 감수, 놀와 (2012 개정판)
- 해설: 이 제시문은 조선시대 문인화가 강희안이 지은 『청천양화소록(靑川養花小錄)』에 대한 강희맹의 서문에서 발췌, 편집한 것이다. 이 부분은 강희안이 여가시간에 개인적으로 화초를 키우면서 인생을 관조하는 동시에 이를 인격 수양과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로 승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제시문 (라)

- 출전: Eric Kluitenberg, *The network of waves: living and acting in a hybrid space*, *Open*, No.11, pp.6-16, 2006; Georgiana Gore, *Flash mob dance and the territorialisation of urban movement*, *Anthropological noteworks*, 16(3), pp.125-131, 2010; 한국경제 2013년 7월 12일자 기사(“동물사랑실천협회가 개식용 반대 이색 플래

시 몹 이벤트를 진행한다.”).

- 해설: 이 제시문은 플래시 몹 현상에 관한 논문 2편과 한국에서의 사례를 다룬 신문기사 1편에서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편집한 것이다. Kluitenberg의 논문은 네트워크사회의 관점에서 플래시 몹 현상을 새로운 공공 공간 창출의 맥락에서 다루고 있으며, Gore의 논문은 플래시 몹에서 등장하는 춤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신문기사는 개식용을 반대하는 협회가 중심이 된 행사(“Stop it!”)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문제 2 (경영대학 및 경제학부 가중치)

■ 제시문의 출전 및 해설

● 제시문 (마)

- 출전: 1) Robert J. Smith, “Resolving the tragedy of the commons by creating private property rights in wildlife,” *Cato Journal*, Vol. 1, No. 2, Fall 1981.
2) Friedrich A. Hayek,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 해설: 이 제시문은 공유자원은 누구에게도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이를 보존하고자 노력할 유인이 없고, 결과적으로 자원이 고갈되므로 자원에 대하여도 사적소유권 제도를 확립하여 자원이 낭비되지 않고 권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개인주의적 사조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 제시문 (바)

- 출전: Charles Taylor, *The Malaise of Modernity*, House of Anansi Press, Chapter 1, 1991.

- 해설: 이 제시문은 공동체주의적 입장에서 개인주의적 견해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개인들은 그들의 삶에서 고귀한 목적이나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가치있는 어떤 것을 가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생활태도는 삶의 의미를 실종시키고 사회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이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 제시문 (사)

- 출전: 1) Tina Rosenberg, “It’s not just nice to share, It’s the future,” in www.nytimes.com.
2) David Rowan, “Rentalship is the new Ownership in the networked Age,” in www.wired.com.

- 해설: 이 제시문은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공유적 경제(sharing economy) 혹은 협동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방식은 자전거나 자동차, 드레스 등을 소유하지 않고 빌리거나 서로 바꾸어 쓰는 생활방식으로 네트워크와 모바일 폰의 기술적 기반위에서 여러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나 일부 분야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자원이나 재화에 대한 사적 재산권을 확립하는 대신에 공유적 소비 방식을 통하여, 적어도 일부 재화의 분야에서는, 사람들이 더 나은 경제적 효용을 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 문제 3 (법과대학 가중치)

■ 제시문의 출전 및 해설

● 제시문 (아)

- 출전: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이창신 역, 김영사, 2010, 51-65쪽.
- 해설: 샌델은 하버드대 교수로서 자유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철학자이다. 이 책에서는 정의가 무엇인지에 관한 관점에서 역사적인 사조들을 조망하고 있는데, 18-20세기 초까지의 격변기의 사조들에 대한 정의의 관점에서 재조명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 중 공리주의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개인의 권리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 제시문 (자)

- 출전: 신중섭외 2인,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국민윤리연구』 제46호, 247-248쪽.
- 해설: 18-19세기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영국의 사상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조명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중 자본주의에 관한 기술에서 개인의 권리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언급되고 있다.

● 제시문 (차)

- 출전: 박인환, 「소유권의 남용과 권리행사의 요건」, 『일감법학』 제21호; 대법원 2013.1.16. 선고 2011다38592,38608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
- 해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대한 실정법적 해석을 다루고 있다. 연혁적인 요소와 현대적 해석을 통하여 이 원칙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을 엄격하게 피력하고 있다.